

머리 없는 몸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24)

오늘 아침 읽은 성경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자 하는 문제는 선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의 뜻은 대단히 다양하고도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이 선교이며 선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의료 선교라면 병든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는 일인가? 또 무료로 고쳐주고 나면 그대도 선교가 되는가? 하는 요즈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구국선교단이라는 것이 생겨서 야간 무료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만 확실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일은 예수께서 하신 선교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는 무리들의 생각과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생각은 꼭 일치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참된 목적은,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저들에게

알려주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신에만 집착한 나머지 병고침을 받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깨닫는 일이 꼭 드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옥중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겪는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처나치게 영웅적인 행위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생각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데 자기가 받는 고난의 참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가지로 평가해서 말합니다만,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옥중에서 고생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난이나 곤욕보다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하나씩 풀려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골로새인들을 향해서 쫓기하여 혁명을 일으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이하에서 바울은 그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해서 애썼던 일은 그들이 사랑으로 달결하여 참된 깨달음으로써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데 자기의 진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바울은 몇 가지로 구분해서 2장 6절 이하에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간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상을 나타내는 신문 기사를 보면 모두 인간의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로 꽂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원시 종교(Ruling Spirit)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가 모든 주권과 권위의 머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밖

에서 신앙고백과 정치문제를 분리해야 하고 혼돈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도, 교회와 정치는 혼돈해서는 아니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물러 있어야 하고, 정치는 정치가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과 권위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일은 결코 정치적인 것이라고 단정을 내려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주권과 권위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둘을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주권과 권위가 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스스로 머리구실을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와 주권이 최고 심판자가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부정하는 데서 여러가지 충돌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제외한 주권이나 권위는 머리가 없는 몸통이에 지나지 않고, 그것 자체가 무서운 괴물로 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과 권위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원시 종교에서 떠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골로새 3장 이하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얻었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이와같이 그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결코, 회람적인 사고로써 지상과 천당, 영혼과 육체를 들로 갈라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땅에 속한 것이라고 지적한 육신의 생각이란, 결국 음행·부정·욕정·악한 정욕·탐욕을 말한 것이고 탐욕은 곧 우수상배라고 했습니다. 격분과 악의, 모욕과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거짓말들이 모두 이 땅에 속한 것이요, 육체적인 일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부터는 위에 있는 것 즉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옷입듯이 몸에 입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말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선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면서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버리고 육적인 땅에 속한 일들을 버리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즘 흔히 말하는 개인 구원이니 사회 구원이니하는 말은 성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원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육신과 정신의 영역을 둘로 갈라 놓는 생각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개인을 생각할 수 없는 동시에 개인을 떠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없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갈라 놓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의 혼란과 부조리의 밑바닥에는 그릇된 철학, 헛된 속임수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 인간의 구원입니다.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주권과 권위를 확립하고 오만과 억압에 집착하는 권세를 일깨워주는 일은 선교의 중심 과제입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오늘도 고난과 곤욕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도 결코 한 인간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준다는 데 머물 수가 없고, 한 인간의 전 인격적인 치유를 목표로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 인간의 치유라는 말은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허물어져 가는 인간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치유의 선교는 결코 의료 분야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져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올바른 치유는 올바른 진단에서 가능한 것처럼, 인간의 총체적인 질환은, 옳게 진단해야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질병을 제대로 진단하는데 있어서 의료 선교는 다른 선교 분야와 연결이 지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질병은 땅 위에 있는 것 육신에 속한 것에 모든 사람이 집착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권모술수와 억압, 시기와 분쟁, 분열과 모독으로써 모든 인간 관계는 파탄에 빠져 버렸고 따라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라는 심한 열병에 걸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단 결과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만 이러한 진단이 과히 틀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병을 치유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걸려있는 잘못된 질병, 속임수는 진보주의요 보수주의라는 말입니다. 저는 직책상 여러 층의 사람들, 특히 교회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만, 그들은 소위 말하는 보수, 자유진영에 관계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생각할 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생각 중에 그대로 간직하겠다는 것과 쓸모 없으니 내버려야겠다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차려놓은 가구 중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하는 것과, 때가 지나면 바꾸어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버리거나 바꾸는 것은,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리고 사회 제도 중에서도 우리는 부조리한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엄밀히 따지면, 보수주의자들인 동시에 또 한 편은 변

화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부숴 버리고 새 것으로만 바꾸자고 할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이 무엇이든지 다 좋으니 그대로 간직해 두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너무나 단순하게 누구는 보수주의자요, 누구는 진보주의자요 하면서 갈라 놓고 분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증상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찌르고 상처를 내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고 풍부한 것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수하려 하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위에 있는 것 즉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보존하려고 하며, 육적인 것 즉 이 땅에 속한 것은 버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 위에 속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늘 위의 것을 눈 앞의 이해관계나, 자기 보존을 위해 버리려고 하는가 하는 구별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기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지켜야 할 명분을 버리고, 신자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보수나 진보라는 말을 구별할 수 없이 어느 편에든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 속임수의 철학 때문에 심각한 자기 분열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그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가 골로새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오. 이 새 사람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

로와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헬라 사람이나 유대사람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미개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고 오직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끊임없이 새 사람이 되는 것,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친절로써 매일 매 시간마다 새로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하며 선포하는 데에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자랑으로 하는 우리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겨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겠습니다.

(KNCC의료선교위원회 조찬기도회에서)